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10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성 다윗**



성인명 다윗 (David)  
 축일 12월 29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왕, 예언자, 구약인물  
 활동지역 이스라엘(Israel)  
 활동연도 +10세기BC  
 같은이름 다비드, 데이비드

예수님의 족보를 여는 첫 말마디는 “다윗의 자손”(마태 1,1)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그의 14대(代)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불리고 있지요. “다윗의 자손”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뜻하는 고유한 호칭인데, 마태오 복음사가는 복음의 첫머리부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탁월한 시인이자 음악가인 동시에 강인한 용사요 군사로서, 후대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1열왕 11,4,6; 15,3,11) 이스라엘 최고의 성왕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많은 왕들 가운데 오직 다윗만이 “임금”(마태 1,6)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은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실패한 임금 사울 대신 통일 왕국의 첫 임금이 되어 당신 백성을 인도할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 예언자는 이사이의 일곱 아들들 중 가장 늙은한 맏이 엘리압을 내심 점찍었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빛나가고 맙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1사무 16,7) 하신 하느님은 그를 깨우치셨고, 들판에 남아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에게 도우하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일곱 형들이 아닌 ‘여덟째’ 다윗이 기름부음 받았다는 사실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어 예수스 *ΙΗΣΟΥΣ* : 숫자로는 888)을 찾거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일곱째 날) 다음 날인 “여덟째 날”(‘주일’ : 가톨릭교회 교리서 2174항 참조)에 부활하셨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느님께서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될 다윗에게서 보신 그 ‘마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갖길 열망하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란, 하느님을 거칠게 모독하는 거인 전사 골리앗 앞에서 서서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1사무 17,45)라고 외치던 다윗의 그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대한 악과 압박한 죽음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다.”(요한 16,32)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 말이지요. 그리고 정적(政敵) 사울을 죽일 기회마다 부하들이 다윗을 종용하던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아니냐? 나는 그에게 손대지 않겠다.”(1사무 24,7,11; 26,9,11,23) 하며, 자신의 억울함과 고된 도피 생활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우선했던 다윗이었지요. 또 임금이 된 이후 하느님의 계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던 날은 어떠했나요? 행렬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던 그를 아내 미갈이 체통머리나 지키라 조롱할 때, “(주님 앞에서)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2사무 6,22) 하며 오직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온 마음을 기울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영원을 한순간처럼 꿰뚫어보시는 하느님께서서는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기름부어 세우시던 그때, 평생 오직 당신만을 향할 그 다윗의 귀한 마음들을 미리 앞당겨 보고 계셨던 것이었겠지요.

하느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님의 탄생과 그분의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은, 다윗이 자신의 도성에 하느님의 성전을 지어 그분의 현존 속에 살고자 강렬히 열망했던 바로 그때였음을 되새겨봅니다(2사무 7장). 우리의 하루가 때로는 산골 양치기같이 남루하고, 때로는 골리앗처럼 거대한 장애 앞에서 무력감에 젖기도 할 테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다 지쳐버리지 말고, ‘당신을 향한 내 진실된 마음’ 그 하나만을 보시는 하느님, 나를 기름부어 세우셨고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신 하느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간직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왕 다윗을 닮아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을 힘차게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강수원 베드로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대림  
 제 4주일  
 2023년  
 12월 2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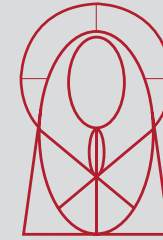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루카 1,31>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사무엘기 하권 7,1-5,8ㄷ-12,14-17,16  
 # 화답송 시편 89(88),2-3,4-5,27과 29(㉔ 2-7 참조)



후렴: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6,25-27  
 # 복음 환호송 루카 1,38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 루카 1,26-38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오경선(원선시오)

- 가족, 박 마리아 가족, 박재영(요아킴)가족, 반석희, 임문수(마르코) 부부, 한 크리스티나, 이광호(다니엘)/지타, 박화성(헬레나), 변태용(요셉), 최 세레나, 박락준(베드로)

- 가족
- 가족
- 이용문(안드레아) 가족
- 이용문(안드레아)
- 가족,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가족
- 가족
- 이순재(마리아) 가족
-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변태용(요셉)
- 채미영(테레사)
- 장수지(아폴로니아)
- 안현정(소화테레사)
- 김 스텔라
- 가족
- 박화성(헬레나)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노스브런스윅 구역, 메타천 구역, 한 크리스티나

- 염은미(클라라)
- 오애희(유리안나)
- 오현주(요한), 오욱자(테레사)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 유병기(베네딕도), 유용희(올리아나)
- 성순영(라파엘라)
- 유근성(시몬), 유희자(베로니카)
- 안기산
- 이순재(마리아)
- 김삼식(베드로)

- 곽 율리아나
- 이호용(프란치스코), 최정원(레지나)
- David Teese
- 로렌 정, 브랜든 정
- 채미영(테레사) 가정
- 문마린(마리나), 문마빈(비오), 채로운
- 김한천(대건안드레아)

- 김한천(대건안드레아), 정주원(율리아나) 가정
- 김성일(베드로) 가정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61명).....	\$1,438
• 2차 헌금 (유틸리티) .....	\$296
• 교무금.....	\$2,260
허종(12)           김순옥(10-12)   이재구(7-12)	
장수지(10-12)   손흥구(10-12)   박정훈(9-12)	
김성일(10-12)	
• 감사헌금.....	\$800
익명(\$200)   이기순(\$100)   오경숙(\$200)   서팰릭스(\$3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방진숙(테레사)
송희수(클라라)		

- 2차 헌금
- 1월 7일: Together in Chrity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 12월 24일 (주일) 오후 4시 한국어/영어 합동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12월 25일 (월) 오전 9시 영어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 12월 25일 (월) 오전 11시 30분 한국어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월 1일 (월) 오전 9시, 경당

• 올 해는 의무 대축일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주일 미사 일정 안내**

- 1월 7일(주일)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 1월 14일(주일) 추후 공지
- 1월 21일(주일) 추후 공지
- 1월 28일(주일)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오늘 미사에서 세례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김한천(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을 위해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교 봉사 일정**

- 1/21 올드브릿지
- 2/18 이스트브런스윅
- 3/17 피스브릿지

**12월 빵과 포도주 봉헌 봉사자**

- 12/24 이종권, 이은숙
- 12/25 김동근, 송진영
- 12/31 이호용, 최정원

**1월 빵과 포도주 봉헌 봉사자**

- 1/7 전광수, 전옥주
- 1/14서경호, 곽금자
- 1/21 심윤조, 박화성
- 1/28 전옥주, 박화성

**2024년 성당 달력 배부**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2024년 달력을 배부하오니 교우분들께서는 한 가정 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구역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장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주소록 작성을 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 1월 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1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2023 사목회 주관 성탄 맞이 성가/캐롤/생활성가 경연대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25일(월) 성탄 미사 후 친교실
- 구역별 2인이상 참가(독창 불가), 구역별로 1곡
- 성가/캐롤/생활성가/신앙 관련 건전 가요
- 시상: 1/2/3등 및 특별상

**성당에서 송년모임 및 성탄행사 시 기물 보호, 청소 및 문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가톨릭 교회 평신도
- 접수마감: 2024년 2월 16일
- 문의: 사무실

**바로로말 성경학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 접수마감: 2024년 1월 31일
- 문의 : 사무실

**사무장 모집 공고 (문의 : 성당 사무실)**

- 응모자격: (1) 본당 신자, (2)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 (3) 생활영어 가능하신 분

**제1독서: 사무엘기 하권 7,1-5.8ㄷ-12.14ㄱ.16**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항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서서 무엇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나? 나는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 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6,25-27**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1,26-38**

그때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